

트럼프, 자동차 관세폭탄 18일 최종결정

결정 시한 압박 세계경제 불안 자동차 수출국 獨·日·韓 촉각 협상용 카드...연기 가능성 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또 다른 통상폭탄인 자동차 관세의 결정 시한이다. 가오자 글로벌 경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수출국들과 협상을 선택해 집행 여부를 결정할 시점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까지 자동차와 그 부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인지 여부를 판정하고 대응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할 때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상무부가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상무부는 조사결과가 건의를 담은 이 보고서 올해 2월 17일 백악관에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지 90일이 되는 오는 18일까지 조사결과와 건의를 수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의 건의를 그대로 집행할지, 다른 조치를 취할지, 아무 조치도 내리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을 내린 뒤 15일 이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고 3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연방 관보를 통해 조치를 고시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의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자동차 관세의 주요 당사국으로 볼 수 있는 일본, 유럽연합(EU)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EU와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협상 중에는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 3월 취재진에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검토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 더 길게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으로 보장된 다른 선택지를 골라 상무부의 결과와 건의를 수용할지에 대한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수출국들과의 무역협의를 위한 협상을 선택한다면 오는 11월 14일까지 180일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연기할 다른 수단도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서도 110일간 결정을 미룰 수 있고, 상무부의 이번 조사를 종료시키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새로운 조사를 지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가 시한이 있어 불확실성이 신속하게

해소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잘못된 낙관론"이라며 "여러 변수가 있어 절차와 불확실성이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독일, 일본, 한국은 자동차 관세의 결정 시한을 조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주력상품인 자동차가 수출에 차질을 빚으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는 EU, 일본과의 양자 무역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협상 카드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U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강행할 때 대비해 2천억 유로(약 265조 4천억원) 규모의 미국 제품에 맞불 관세를 놓는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한국은 유명회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부터 15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은 자동차 관세에서 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日,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저장탱크 '장기보관' 검토

2011년 수소폭발 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처리수(방사능 오염수를 정화 처리한 물)의 처분방안으로 일본 정부가 탱크에 장기보관하는 방안을 새롭게 검토할 것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일본 정부는 처리수의 해양 방출을 포함해 5개 처분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외부로 방출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 실현 가능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제산업성의 전문가 소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장기보관을 포함해 총 6개 방안을 두고 압축하는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6개 방안은 해양 방출, 대기 방출, 지하 매설,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지중 주입, 전기분해,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장기보관하는 방안 등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열린 관련 공청회에서 처리수의 장기보관을 희망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자 처분방안으로 추가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처분방안에 대한 전문가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일본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방법론에 대한 전문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2020년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을 앞두고 처리수 처분방안이 주목을 받아 이를 둘러싼 '풍평피해'(風評被害-소문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계획상으로는 처리수 처분을 포함해 폐로가 완료되는 시점은 2051년이다. /연합뉴스



마닐라 선거 홍보물 홍수 필리핀 중간선거일인 13일 마닐라의 한 투표소 근처 거리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입후보자 등의 선거 홍보물로 뒤덮여 있다. 이번 선거는 집권 3주년을 앞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 70% 가량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두테르테의 권력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합뉴스

폼페이오 "북핵파일 두번 다시 열어볼 필요 없도록 하는데 집중"

대북압박 견지, 국제공조 강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과거 전임 정권 시절에 있었던 비핵화 협상이 북한의 추가 핵 생산과 외교적 실패로 이어졌다면 이러한 전환을 밟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비핵화 견인을 위한 대북 압박 기조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12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에 따르면 폼

페이오 장관은 전날 밤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에서 열린 싱크탱크 클리어먼트 연구소 40주년 축하행사에서 참석, 연설을 통해 "우리가 북한과 했던 과거의 시도와 합의들은 단지 더 많은 북한의 핵과 미국의 외교적 실패를 낳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대북 외교는 우리가 두 번 다시 북한의 핵 파일을 또 열어볼 필요 없이도 분명히 하는 데에 정확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무부가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최종적으로 비핵화시킬, 그래서 핵 이슈가 다시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기를 원한다"고 밝힌 입장과의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우리는 국제적 합의들이 미국의 이익을 분명히 향상시키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것(북한 비핵화 문제)이 심각한 일이라는 걸 알길 원한다"며 "우리는 미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81> 의종

의종(懿宗, 833-873)은 당나라 17대 황제다. 사치하고 방탕한 생활로 당 왕조의 멸망을 촉진했다.

아명은 이은으로, 선종의 장남으로 833년 11월 태어났다. 회창 6년(846) 10월 운양에 봉해졌다. 생모는 조씨로 선종이 가장 총애한 비였다. 선종이 단약의 후유증으로 659년 8월 급사했다. 군권을 장악한 환관 왕충삼은 운양을 궁으로 맞이하여 이최로 개명하고 황제로 즉위토록 하였다. 환관들이 재상들에게 즉위 관련 문서에 서명을 요구하자 재상 하우지가 나서 지난 수십년간 황제의 즉위 문제에 재상들이 참여한 전례가 없다며 제일 먼저 문서에 서명을 했다고 한다. 환관이 있는 북사(北衙)가 조정 대사를 결정한다는 감로지변 이후의 전례가 재삼 확인되었다.

가 요절하자 의종은 2명의 여의를 처형했다. 300여명의 여의 가족을 연좌죄로 묶어 발을 주려하자 경조운 온장이 이를 간하였다. 다음날 진주사마로 좌천되었다. "살아서는 때를 만나지 못했는데 죽는다 한들 뭐가 아쉬우냐"라는 말을 남기고 자결했다.

민생이 크게 어지러워지자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즉위하던 해 절동지역에서 구보가 농민반란을 주도했다. 스스로를 '천하도지병마사'로 칭하고 연호를 나평으로 개명했다. 왕식을 절동관찰사로 임명해 진압에 나섰다. 왕식은 장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들을 구출해 민심 이완을 차단했다.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포위작전을 감행해 구보를 체포해 장안으로 압송, 처형했다. 868년에는 장수성에서 번진 출신의 방훈이 난을 일으켰다. 1년여 만에 난이 진압되었지만 조정의 무능

사치·방탕으로 당 왕조 멸망 촉진

의종이 환관의 선택을 받은 것은 무능하고 정사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듯이 유희에 깊이 빠져들었다. 매일 소연회가 열렸고 3일마다 대연회, 매달 십여차례 대규모 주연이 개최되었다. 궁중에는 500여명의 악공이 있었다고 한다. 수시로 장안 교외의 행궁(行宮)에 행차해 오락과 유희를 즐겼다. 곡강, 곤명, 파산, 함양 등에 놀러 행차하고 싶으면 즉시 갔고 유사는 항상 음악, 음식, 천막을 갖추고 있었으며 여러 친왕들은 말을 세워놓고서 모시고 따라가는 것에 대비했다. 행차할 때마다 안팎의 여러 관사에서 뒤따르는 사람이 10여만 명이었으니 비용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좌승유 유태는 유희를 즐기고 정사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건의했지만 허사였다.

의종은 재임기간 21명을 재상에 발탁했지만 범용한 인물뿐이었다. 두중은 통전을 쓴 두우의 아들로 명철보신에만 신경을 썼다. 노암은 36세에 재상에 오른 연부역강한 신하였지만 전횡을 일삼았다. 위보형은 의종의 사위로 노암과 함께 많은 부정을 저질렀다. 의종과 총애하는 곡속비 사이에 태어난 동창공주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의종은 거대한 저택과 함께 500만 민을 지참금으로 주었다. 그러나 2년만에 공주

력이 만천하에 알려졌다. 무종의 회창 폐불로 존폐 위기에 처한 불교는 선종의 복불령(復佛令)에 힘입어 점차 세를 회복했다. 선종 이후 불교사원이 다시 건립되기 시작했다. 의종은 유달리 불교에 깊이 빠져들었다. 사원 조성과 불상 건립에 돈을 아끼지 않았다. 의종은 불교에서 자신의 안식처를 찾으려 했다. 대규모 법회가 빈번히 열리고 불경이 다수 간행되었다. 873년 3월 황제가 칙사를 파견해 법문사에 가서 부처의 사리를 맞이하게 하니 많은 신하들이 간언하였다. '헌중은 사리를 맞이하고서 얼마 안다가 붕어했다'고 말하였다. 의종은 "집이 살아서 이것을 분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고 말하였다. 절까지 300리 사이의 도로에 거마(車馬)가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다. 4월 사리가 경사에 이르자 금군의 군사들로 의상고음악을 연주하며 인도하였다. 부자들이 비단으로 건물을 장식했다. 사리를 영접해 궁궐로 들어오고 사흘만에 꺼내어 안국승화사에 안치하였다. 재상이하 모든 사람들이 다투어 시주하였다. 많은 죄수들을 감형하였다. 동년 6월 갑자기 병에 걸려 위중해졌다. 873년 7월 41세로 함녕전에서 붕어했다. 실제 환관 전령자는 12세 이엄을 황제로 즉위시키니 희종이다.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구,현대극장 바로 옆)
- 20층중 3층, 38평
- 하천방향, 전체 을수리, 사무실 전용
- 관리비 저렴, 주차편리
- 보1천만원에 월50만원에 임대가능
- 시세/감정가 - 1억400만원
- 급매 - 7500만원(일시불)
- 문의. 010-6834-7400